

SMART CITY SearchLight

R.A. 위수연/ 3773-8882

R.A. 유예하/ 3773-8592

R.A. 최민경/ 3773-859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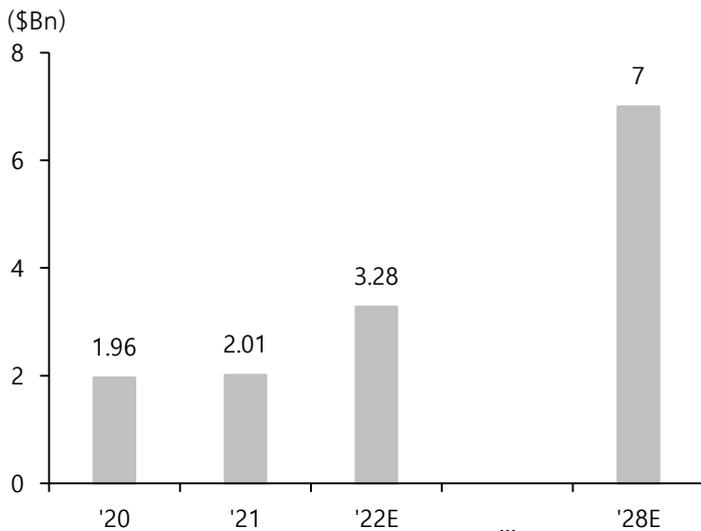
스마트시티추진실, 박한샘 / 3773-8477



전국에 6천만 톤 이상 저장, '탄소 향아리' 생긴다

관련 뉴스 요약 “폐가스전의 변신... ‘동해가스전’, 탄소 저장소로 거듭날 예정 ”

글로벌 CCS 시장 전망



자료 : Offshore-Energy, SK증권

- 정부가 80여 개 기관과 함께 ‘탄소 포집·저장 기술 (CCS; Carbon Capture and Storage)’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가스전에 탄소 가두고자 인프라 구축할 예정
- CCS는 공장 및 발전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압축·수송을 거쳐 땅 속에 저장하는 기술. 작년 시추가 종료된 동해가스전에 총 1,200만 톤 매장 가능
- 주요국이 '50년까지 탄소를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CCS 시장은 커질 전망이다. 해저 저장을 위한 운반선, 해상플랜트 기술 등 관련 분야의 성장도 주목할 필요

#CCS #탄소중립 #탄소향아리

Briefing

“스마트공장으로 날개 다는 K-제조업, 남은 과제는 ‘고도화’” (출처: 동아일보)

- 국내 스마트공장 '14년 227개에서 '22년 3만개 돌파할 전망이지만 IoT 수준 저조. 중기부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

“폐식용유 연료만으로 하늘을 나는 군용기 등장 ... “탄소 절감 최대 80%”” (출처: 경향신문)

- 영국 공군, 지속가능 항공연료(SAF)만 100% 사용하여 군용기 띄우는 데 최초 성공. 기후변화 대응 및 연료 보급 다양화